

## 벤처인에게 들어보는 올해의 결실

벤처인들의 큰잔치 벤처코리아 2004가 벤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황리에 끝이 났다. 이번 행사에서 알찬 결실을 일군 벤처인들을 만나 기억에 남는 올해의 결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았다.

### 청년실업의 난관을 뚫다

지난 4월 취업박람회 통해 픽셀플러스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. 요즘처럼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을 때 그 난관을 뚫고 벤처기업대상 은탑산업훈장에 빛나는 회사에 입사한 것이 2004년 저의 가장 큰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편찮으셨던 아버지가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요, 아버지를 간호해준 여자친구가 고마운 한해였습니다. 아버지가 편찮으시니 부자지간의 정도 더 깊어져 집안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. 내년엔 그 친구와 결혼할 예정입니다. 아버지도 완쾌되고, 가정도 꾸리고... 올해보다 내년이 더 풍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픽셀플러스 시스템팀 손정식

### 경쟁력이 높아지다

올해 가장 큰 변화는 모바일게임에 대한 애착이 생겼다는 겁니다. 평소 인라인 등 몸으로 하는 운동을 좋아했는데, 모바일 게임회사로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게임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게임시장 흐름을 읽는 눈도 생기더군요. 이번에 받은 대통령표창이 회사의 수확이라면 회사에 들어와 게임에 대해 해박해진 것이 올 한해 저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. 표창 받을 정도로 공인된 회사이기에 자부심도 남다르고요, 동료들과 앞으로도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얼마전 출산하신 대표님께 대통령표창은 멋진 출산 선물이었다니 생각됩니다. 대표님! 앞으로 더 큰 선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- 이쓰리넷 콘텐츠운영사업부 하기수

### 보여줄 성과가 더 많다

대학생창업벤처기업부문 벤처기업협회장상을 수상한 것이 가장 큰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2003년 친구들과 회사를 설립하고 제품을 출시하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서서히 시장에서 좋은 반응도 나타나고,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사업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. 이런 큰 상도 받았으니 올 한해는 저희 팀에게 최고의 해였습니다. 키스킨은 실리콘소재의 보호커버를 주로 생산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을 더욱 다각화할 예정입니다. 따라서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보다 앞으로 보여줄 성과가 더 많을 것입니다. 지금 저희 팀은 자신감에 차있습니다. 이런 자신감과 성과를 바탕으로 통련하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. 앞으로 더 큰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. 지켜봐 주십시오.

- 키스킨 공동대표 김태은(동아대학교 고고학과)

### 후견기업을 두게 되었다

2002년 벤처창업대전 대상 수상에 이어, 올해는 'Young Leaders, Now & Future'를 통해 다산네트웍스라는 든든한 후견 기업을 두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. 대학생 신분엔 14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의 대표가 되었고, 부채 없이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 또한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조인을 맺은 다산네트웍스의 남민우 대표님은 저에게 연예인이나 다름없습니다. 좋은 기회인 만큼 저희 회사가 더 클 수 있도록 경영 노하우를 많이 배우겠습니다. 저는 스스로 무사라고 생각합니다. 항상 진검승부에서 지지 않으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. 이제껏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실력으로 진검승부하겠습니다. TV에 제 이름 석자를 알린 것은 개인적인 수확을 넘어 가문의 영광입니다. ^^

- 하나기전 대표 이준환(군산대학교 해양시스템 공학과)